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6월 7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60:1-7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캄캄하게 보입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 세상이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이 난무해도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과 마음의 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영안이 어두우니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영적인 무능에 빠져 그냥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을 말하는 사람은 없고 연구 해서 발표를 해도 엉뚱하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 학교에서 명상 운동은 해도 올바른 영적 훈련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세대를 이어 계속 내려 가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곧 남은 자 운동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후대를 위한 복음 운동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으며 가장 영향을 많이 입힌 사람은 부모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복음을 받았고 아버지의 기도 안에서 자랐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의 근본 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복음을 받았고 절박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만 합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잡은 언약 나실인과 그녀의 기도로 인하여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의 살아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 오지 못했던 것은 전부 한나로부터 나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일어나 빛을 발하라

1)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빛이 세상에 전달 될 것이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며 그것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릴 것이다. 세상은 아무도 이 빛을 알지 못하니 너는 이것을 전달하여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이 광명으로 인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다시 한 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을 가진 남은 자들입니다.
2) 고전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니나님이 주신 이 빛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절대적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빛 안에 들어온 자가 밝아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이 빛은 복음이요 그리스도이며 마음과 생각이 어두움에 잡혀 있는 자가 빛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치유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3) 결국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빛을 발한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되어졌고 그것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고하여 이 빛 운동을 하라는 메시지 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빛으로 그 시대를 살렸고 모세는 모세대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했습니다.
4) 이 빛 운동을 위하여 성경에 우리가 참고 하고 따라가야 할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근접한 예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이 빛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데 생활 방식이나 문화가 우리와 가장 근접되어 있고 전도에 대하여도 가장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을 참고로 하는 것이 어떻게 이 빛을 현장에서 발할 것인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5)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행 9:1-15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먼저 복음을 알게 됩니다

6) 그리고 행11:26을 보면 1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동안에 정리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 많은 제자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러는 중에 행13:1-3에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아사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에게 자꾸 문이 막혀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고 그것이 행 16:6-10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는 많은 현장 제자들을 찾고 한 지역에 한 제자를 세우고 자신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으나 바울이 그 지역에 없어도 전도는 지속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두란노 서원 한 곳에서 계속 말씀을 전달했고 제자들이 현장과 두란노 서원 훈련장을 왔다 갔다 하며 복음 운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로마로 연결이 되어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완성하고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8) 대체적으로 정리한 사도 바울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입니다. 이 과정의 그림을 놓고 나는 어디 쯤에 해당되는 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야 될 시간표인지 아니면 교회를 살리는 사역자 시간표인지, 아니면 교회 사역에 답을 얻고 교회의 파송을 받고 현장에 사역을 나가야 하는 시간표인지, 아니면 현장 사역을 해도 그냥 현장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책임질 제자를 찾아 가야 하는 시간표인지,

9) 아니면 나는 한 곳에서 찾아 오는 제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현장으로 파송하고 그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시간표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서 그 동안 세워 놓은 많은 제자들을 보내고 부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령관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인지 등등 자신의 시간표를 한 번 점검해 보고 나의 시간표를 언약으로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 이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빛을 발하는 전도 운동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다른 사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기록하고 남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전도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림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잘 확인을 하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잘 정리해 봐야 할 것입니다.

11) 사도 바울의 전도 운동의 특징이라면 정확한 복음, 제자 중심 전도, 기도 중심 전도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의 흐름의 이면에 있었던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도 바울의 일생 전도의 여정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12) 처음 복음 받을 때에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하셨고 이후에 아나니아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그것에 따라 바울의 인생이 정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다 필요 없고 말씀이 성취되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말씀이 임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두고 말씀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